

開化期文學樣式的 問題點

— 方法論的 側面致 —

金 允 植

1. 序 言

한국 開化期에 나타난 文學樣式的 總體的 點檢이라는 課題는 아직도 體系的으로 究明되어 있지 않은 實情인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나, 筆者 所見으로는 첫째 開化期 자체에 대한 思想史的 究明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져있지 못한 상태라는 점, 둘째는 이 방면의 基礎資料의 未整理, 세째로 學界의 관심이 開化期에 별로 集中되지 못했던 점⁽¹⁾ 등이 그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중 세째 항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요청될 것이다. 그것은 歷史에 있어서의 價値增大의 측면에 관계된다.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진다. 첫째 韓國文學史를 古典에서 新文學까지 일관된 總體性으로 파악할 때 必然的으로 連續性 問題에 봉착하게 된다. 그동안 韓國文學研究가 古典쪽과 新文學쪽을 區分別個의 영역으로 사고하여, 各各 研究를 進行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그 結果 各各의 領域이 다소 進行되었을 때 文學史構成問題의 段階가 놓이는 것이다. 다소 조급하기는 하나 이 觀點에서 韓國文學史의 總體的 構成문제는 新文學研究家들에 의해 먼저 제기될 것이다. 新文學研究 자체의 對象的 限界性이 必至이기 때문이다. 한편 古典文學研究쪽도 이 염

(1) 最近 李在銑「韓國開化期小說研究」(一潮閣)는 그 實證的 側面에서 한 業績이라 생각된다.

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어차피 時間問題일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古典文學研究가 記錄文學的인 영역에 칩거했을 때 對象的 限界에 봉착했고, 이를 극복하는 方法의 하나로 口碑文學 領域으로 몰린 바 있었다. 그 결과 記錄文學의 장르 缺如를 口碑文學으로 보충할 수 있는 터전이 형성된 것 같아 보인다. 만약 필자의 이러한 把握이 다소 타당한 판단이라면 古典文學쪽의 文學史構成은 漢文樣式의 言語的 측면만을 除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것 같다. 이러한 觀點에서 韓國文學史構成의 難關의 하나는 古典文學과 新文學의 接點問題인 것이다. 가령 意識의 문제만 하더라도 新文學이 植民地下의 合法的 運動으로 奴隸文學이라는 點⁽²⁾, 日本의 明治大正文學의 移植史라는 점⁽³⁾의 受容與否가 놓여있으며, 古典文學에서 階層문제를 놓고 볼 때도 「主體性과 民衆性」의 문제가 엄연히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⁴⁾ 따라서 開化期 파악 方法은 금후 상당한 기간동안 韓國文學研究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論제는 開化期研究의 方法論에 관계된다. 그 方法論은 比較文學과 藝術社會學의 方法論上의 反省을 뜻한다. 가령 近代라는 西歐的 충격이 가해왔을 때 日本, 中國, 韓國에서 各各 드러난 反應 및 그 상호, 혹은 一方的 文化關係의 究明은 단순한 比較文學的 方法으로는 그 本質을 살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文化型의 比較와 文化受容法則

(2) 丹齋 申采浩의 見解에 의하면 日帝下의 一切의 合法的 文化行爲는 이렇게 規定된다. 이러한 思想의 文學史的 編入問題에 대해서는 拙稿「反歷史主義의 過誤」, (「文學思想」2號) 참조.

(3) 林和의 見解, 金允植·김현 「英正에서 4·19세 이르는 韓國文學史」序論(「文學과 知性」7號)참조. 上記論文과 本稿는 약간 重複된 면도 있으나, 本稿에서는 見解의 修正과 深化를 꾀했다.

(4) 支配階層을 표준으로 할 것이냐 民衆의 生活體驗을 표준으로 할 것이냐, 혹은 한 民族單位로 記述할 것이냐의 문제는 많은 細部的 段階가 놓이는 것이다. 이점은 新文學쪽에도 문제점이 된다. 丹齋가 1925年頃의 段階主義를 否定하고 民族單位만을 고집했을 때 과연 그것이 妥當했는가의 여부는 後考를 要한다. (Nym Wales: Song of Arirang, New York, 1941. Chap. 6, 赤城山人「朝鮮社會運動概觀」[東亞日報] 1925. 1. 1. 등 참조.

의 方法論이 要請되는 것이다. ⁽⁵⁾ 한편 藝術社會學에서는 종래의 發生學的, 生物學的 方法은 그 한계에 부딪힌다. 이미 開化期는 複合體의 樣相을 떠는 것이며 社會와 藝術의 對應關係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요하는 것이다⁽⁶⁾. 그러나 이것으로는 벽에 부딪게 된다. 즉 美學的 理論이 要請되게 된다.

이상과 같은 韓國文學研究의 몇가지 方向設定과 관련하여 開化期의 諸樣式의 一端을 살펴보려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다. 그 중에서 律文樣式을 據點으로 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律文樣式이라 했을 때 세가지 意味가 內包된다. 그 하나는 律文樣式이란 것의 概念設定이 散文樣式과 對比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며, 둘째는 開化期의 文學이 현저히 律文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事實이다. 「開化期小說」이란 말을 쓸 必要가 있는 것은 新小說이란 것이 古代小說보다 거의 새로운 바 없다는 것, 따라서 「開化小說」이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것⁽⁷⁾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相對的으로 唱歌類의 律文樣式이 開化思想을 담당한 측면이 우세했을지도 모른다는 假設을 들 수가 있게 된다. 제재, 律文樣式의 핵심에 놓인 리듬의 意味가 本質的인 形式感覺일 수 있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단지 韓國民族의 어떤 예술적 偏向性인가를 묻게 된다. 本質的인 形式感覺의 考察이란 美學的 原理에 관계되는 것이며, 어떤 特定한 民族的 偏向性이라 했을 때 民族心理學의 問題點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問題의 提起는 이에 멈추지 않는다. 가령 樣式이라 했을 때, 그것이 장르로서 定着되지 않은 流動性을 뜻한다고 가정할 때는, 開化期 空間에 놓인 小說이 新知識을 受容함에 실패한 것은 그것이 장르로 定

(5) 拙稿 「근대문학에 있어서의 韓·中·日三國의 關係檢討와 그 問題點」 (『大學新聞』 1972. 5. 8.).

(6) 이 方法論은 프리체, 루카치, 골드만의 理論들이 참조됨. 특히 L. Goldman: Pour une Sociologie du Roman, 1964 참조.

(7) 「英正에서 4·19 에 이르는 韓國文學史」 前揭文(『文學과 知性』 9號 참조).

着된 構造的 堅固性의 개념을 고려하게 할 것이다. 반대로 律文樣式으로서의 唱歌족이 新知識에 민감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장르以前의 樣式의 流動性, 소위 構造的 弱體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는 假說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開化期文學研究의 段階가 (1) 文體의 次元, (2) 樣式의 次元, (3) 장르의 次元으로 各各 分析 解體되어야 할 것으로 豫見된다. 이 경우 장르란 社會的 階級的 土臺構造와 연결된 構造에 관련된 것을 잠정적으로 한정할 뜻인 것이다. 따라서 新知識受容이라는 價値移越性과는 현저히 복잡성을 내포한다.

요컨대 이러한 試圖는 하나의 假說的 상태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 開化期의 文體

開化期文學樣式이 自生的이 아니고 傳統樣式과의 충돌에 의한 流動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그 方向性 決定의 重要性이 증가될 것이다. 樣式概念이 定着 내지 固着 되지 못한 狀態에서 라면 一切의 文字行爲의 重要性이 增大된다. 이 文字行爲의 包括的 概念속 未分化된 채 複合되어 있는 樣式 및 장르概念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假說에서 출발한다면 開化期一切의 文字行爲를 고찰할 때 文體問題가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開化期 文體混亂 내지 變革은 思想의 混亂 내지 革命과 對應된다. 이 對應關係의 究明은 朝鮮朝 言語體⁽⁸⁾의 解明 다음 차례에 와야 할 것이나, 대체로 開化期 文體의 對應關係는 다음 셋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漢文體를 들 수 있다. 勿論 이 漢文體는 뿌리 깊은 士大夫 階級에 對應되는 것으로 설사, 1905 모든 公文書가 國漢文體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한 유림층에 직결되어 있었고, 「韓國痛史」 「甲申日

(8) 이 說語體의 문제는 說語體(langue)의 階層性과의 관계가 시사적임 (R. Barthes: Le Degré Zéro L'écriture 참조).

錄」 「梅泉野錄」 등의 記錄文學의 탁월한 저서들이 漢文體로 이룩되고 있다. 이 사실은 開化階級의 저항체가 非中人階級性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國漢體를 들 수 있고, 이것이 開化期의 公的用語이며, 현재까지도 使用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된다. 특히 이 國漢體가 中人階級性에 對應되고 있다는 사실의 究明은 思想史가 당면한 가장 큰 유혹에 속할 것이다.

國漢文體를 새로운 文體로 형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問題的個人은 兪吉濬일 것이다. 「西遊見聞」(1895)이전, 이미 「國城周報」(1886. 1)에 漢文, 國漢文, 國文의 세 文體가 나타나며, 同 5월 鄭秉夏의 「農政最要」가 國漢文 단행본으로 나왔고, 한 연구가의 기록을 믿는다면 1883년에 兪吉濬이 벌써 한 新聞(未刊)의 創刊辭를 國漢文으로 쓴 바 있다는 것이다.⁽⁹⁾ 요컨대 「西遊見聞」은 그 저서 규모의 호한함에서, 言語觀의 명확함에서, 그리고 漢文體에의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의를 띠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핀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가 國漢文體를 사용하는 이유로 (1) 말을 쉽게하여 文字를 略解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 〈作文하는 法〉에 있어서 작자 자신이 漢文體가 미숙하다. (3) 〈成邦七書諺解의 法을 偏則〉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¹⁰⁾ 이중 문제되는 것은 (3)으로 보인다. (3) : 正音創製 以後 中國七書(論語小學 大學等 經書諺解)번역方法에 준한다는 역사성의 천명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西遊見聞」이란 저술이 단지 見聞記가 아님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즉 「書籍에 考據」한 理論書, 더 정확히는 翻譯書의 一種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成邦七書諺解의 法을 偏則한 측면과 開化思想의 융합이 兪吉濬의 多年間의 日本留學 및 福澤諭吉과의 관계로 보아⁽¹¹⁾ 日本文體의 導入과 깊은 관계에 놓여 있다. 실상 開化期

(9)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一潮閣) pp. 51-53.

(10) 「西遊見聞」(一潮閣) 序文.

(11) 姜在彥 「朝鮮近代史研究」(日本評論史) 二章 p. 67. 小泉信三 「日清戰爭と

의 公的 言語가 國漢文體로 확정되는 過程의 年代的 내지 意識構造의 變化란 文體와 階層 혹은 階級性과 鮮명한 對應關係에 놓인다는 것의 省察이야말로 文學社會學의 得意의 領域일 수 있다. 文體와 階級性의 對應關係의 分枝點이 鮮명이 드러온 곳에 바로 開化期인 것이다. 이 國漢文體가 公的 文體로 채택되는 과정은 朝鮮王朝의 서서한 皮봉과정과 一致하며, 日常에 병합되는 순간에 完成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梅泉野錄」의 저자가 『是時京中官報及外道文移, 皆眞諺相錯, 以綴字句, 盖日本文法也』⁽¹²⁾라고 지적했을 때 투철한 歷史意識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온다면 開化期 國漢文體의 확립은 支配層의 「위로부터의 文體改革」을 뜻하는 것이며, 그것이 日本文體와 직결되었다는 事實로 하여, 침략의 지름길을 놓았다는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 公的 文體의 方向性 決定이 七書諺解와 같은 연장전상에서 進行되었다고 主張되더라도 그 결과는 同一한 것에 귀결될 따름이다.

이 위로부터의 改革인 國漢文體가 權力層 士大夫 계층과 中人階層이라는 사실의 省察은 開化期 性格 究明에 必至해야 할 要件으로 보인다. 譯官系의 吳慶錫, 그리고 劉大致와, 朴泳孝, 金玉均 등의 結合, 開化內閣의 實務者級의 中人階級性, 日本留學生의 性分에서 드러나는 사실⁽¹³⁾ 등은 開化期가 브르좌的 性格을 현저히 보여주는 例에 속할 것이다. 開化期 文學行爲 중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한 六堂이 中人階級性을 典型的으로 反映하였다는 사실이 바로 六堂式 啓蒙主義의 韓國的 樣相이며, 六堂의 文章, 新體詩, 唱歌 등의 本質究明이 이 中人階級性의 制約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세제 國文體를 검토할 차례이다. 美國人 徐載弼발간 「독립신문」(1896 4)이 國文體사용의 한 이족·메이킹이며, 自強獨立思想의 發露라고 널

福譯諭吉]「改造」19卷 12號), pp. 206-208.

(12) 黃玃 「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 p. 168.

(13) 金泳謨 「韓末外來文化의 愛容階層」(「文學과 知性」7號)참조.

리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독립신문」이 獨立自強思想의 一片點에 純國文體의 核心이 놓여있었느냐의 여부는 단순히 「한글」 즉 自國語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論據가 결코 될 수 없다. 오히려 正反對이거나 無關한 혹은 보다 기괴한 新奇 콤플렉스, 더 심하게 말하면 새로운 또 다른 衞學趣味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독립신문」과 관련된 國文體에 대해 결론부터 말한다면 첫째 國漢文體와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文體改革이라는 점, 둘째 國文體가 時代錯誤的 產物이기 때문에 「독립신문」이 소멸된 후, 모든 다른 新聞이 國漢文體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大韓每日申報」, 「대한신문」등이 國漢文體에서 國文體로 그리고는 併行體로 바뀌다가, 다시 國漢文體로 환원되고 마는 사실이 이를 증거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⁴⁾

「독립신문」은 (1) 외국인을 오히려 國內人보다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의도적 측면, (2) 立憲君主制의 정치사상, (3) 기독교적인 모랄의식 등으로 그 사상적 배경을 集約시킬 수 있을 듯하다.⁽¹⁵⁾ 「독립신문」의 國文體는 띄어쓰기를 의식함으로써 현저히 先進的이며, 따라서 당시 언어감각으로 본다면 國漢文體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으리라. 그러나 國文體채용에는 다음과 같은 難點이 처음부터 예상되었다. 즉, 國漢文體는 兪吉濬이 인식한 대로 七書諺解라는 역사성에 의해, 士大夫계층의 漢文보다는 다소 덜 抽象的이나, 상당한 사고의 밀도와 논리의 깊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開化期의 中和的인 文體로 그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바라면 國文體란 朝鮮朝에선 소설이나

(14) 文體의 變革을 알기 위해서는 開化期 新聞의 變貌過程을 살필 수 있다. 「漢城周報」(1886)는 漢文, 國漢文, 國文을 동시에 사용했으나, 號를 거듭할수록 國文記事를 줄여갔고, 「皇城新聞」이 國文體에서 國漢文體로 옮겨갔으며, 「大韓每日申報」은 國文報를 併行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1907.5 1社說) 「萬歲報」(1906) 「大韓民報」(1909)등이 國漢文體로 출발했으며, 특히 前者는 漢字옆에 토를 붙여 日本文體를 그대로 방불케 했던 것이다.

(15) 「독립신문」창간사 및 제69號 「잡보」란 참조.

諺解 및 가사체로 사용되어 논리적 심화를 배제하고 情緒的, 感應力에 주로 의존해 왔던 것이다. 그 國文體는 실상은 律文樣式이든 散文樣式이든 다분히 장르, 형태 혹은 종류에 따라 卍리체化되어 있어 民衆의 日常語와 一致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강했던 것이다. 國文으로만 쓰여졌다해서 言文一致가 아님은 새삼 말할 것도 못 된다. 「독립신문」이 이를 채택했을 때 民衆라는 별로 관계없이 歐美文化, 기독교적 사상에서 겨우 지탱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⁶⁾ 그것은 國文體가 英語文章의 번역에, 그리고, 그 번역體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과 관계된다. 英語文章의 번역의 저항이 國文體에서 가장 덜 느꼈다는 假定이 만약 성립된다면, 이 점은 國文體가 思想을 包懷하지 못한 空虛狀態의 言語임을 反證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開化期 國漢文體의 日本志向성과 國文體의 歐美志向이 對應關係임을 뜻하며, 兩者가 함께 위로부터의 改革이라는 점, 中人階級的 性格이 농후한 점에서 一致하며 國文體의 生成消長過程은 日本勢力과 歐美勢力的 消長關係와 一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文體의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開化期의 散文樣式과 律文樣式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方法論的 省察은 단순한 論理學의 蘇種概念에 根據하는 극히 초보적 단계인 것이다. 고쳐 말하면, (1) 이 文體의 고찰 다음차례에 (2) 散文樣式과 律文樣式을 고찰해야 하고, 그 다음 차례에 (3) 장르 概念으로서의 開化小說 新體詩, 唱歌, 短篇小說등을 고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1)에서 (3)으로 갈수록 社會的 側面과 階層的 側面的 密度 내지 比重이 줄어든다는 점이 文學研究의 特殊性으로 分明히 밝혀들 필요가 있다. 이 점은 文學社會學의 洗練性和 關係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一般的 原論的 原則과 地方性장르 (vernacular genre)속에서의 個別的 原則이 矛盾概念으로 드러난다면 그

(16) 「독립신문」 152號 社說.

部分이야 말로 價値增大(Wertsteigerung)에 놓일 것이다. (1)과 (3)속의 文體와는 그러한 관련속에 놓일 수 있다.

3. 開化期 散文樣式

開化期 散文樣式은 (1) 新聞論說, (2) 翻案 및 翻譯物, (3) 創作小說 (4) 演說의 散文化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 論說樣式

新聞論說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嗚呼라 本日は 大韓光武十年陰歷十一月初四日 即閔忠正公의 殉國하신 第一期라 是日也에 昊天이 爲之陰寒하니 此非大韓同胞愁怨之氣耶아 凍雨가 爲之滂沱하니 此非大韓同胞血淚之滴滴者耶아 嗚呼라 公之貞忠大節이 炳如日星하고……然則 大韓人衆이 必須堅其志氣하고 勉其學問하야 結心戮力하야 復其自由獨立을 一如 公之中하야 陰晦가 快靄하고 天日이 光明한 氣象을 可以快靄矣라하노라⁽¹⁷⁾

이러한 論說은 經世學의 文體 그대로이며 漢文에 토를 단 정도로해서 漢主國從상태의 전형성을 보이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文體의 소멸과정에 있을 것이다.

國漢文體가 日本文體와 直結되어 있었다는 것과는 별도의 의미에서, 言語의 機能上 國漢文體가 가장 효율적으로 당시의 사상을 있었다는 점의 확인이 究明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이 論說類에서 확인된다. 哲學的 經世의 思想 및 論理의 深度에서라면 純漢文體가 가장 확실했을 것이다. 開化期 初葉에 수없이 쓰여진 上疎文에서 이 점을 볼 수 있다. 이 漢文體는 중후한 格調를 동반케 하며, 故事, 成語의 文化的 압력을 共有함으로하여 文章의 힘을 濫存시키는 것이다. 漢文體 그것이 停止된 時間性이면서 超時間性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新聞의 屬性으로 하여, 國漢文體가 당시로서는 選擇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선택된 조건속에서

(17) 「大韓每日申報」, 1906. 12. 19.

라면 最大限 漢文體의 超時間的을 확보하는 方向性을 志向한다. 具體的으로 그것은 史學과 저널리즘, 經世學과 저널리즘의 結合을 가능케 했던 것이며,⁽¹⁸⁾ 朴殷植, 張志淵, 梁起鐸, 申采浩등 志士的 知識人의 志를 펼수 있었고, 그 무대가 學會誌 및 新聞論說이었다. 그 典型的인 例를 든다면 『嗚呼痛矣라, 我二千萬爲人奴隸之同胞여, 生乎아 死乎아, 檀箕以來四千年國民精神이 一夜에 猝然滅亡而止乎아』⁽¹⁹⁾라는 張志淵의 是日也於聲大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志士的 文體는 開化志向性과 獨立志向性이 國家喪失을 계기로 완전히 矛盾概念으로 드러날 때(1910이후) 六堂의 차례가 오며, 同時에 六堂의 解說的 軟文體型 國漢文體時代가 놓인다.⁽²⁰⁾ 이렇게 보아온다면 開化期 國漢文體라 했을 때도 前者와 後者의 顯격한 차이를 들 수 있어, 두개의 樣式이 존재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六堂 以後의 國漢文體는 開化思想의 解說的 教育的 측면, 고쳐말하면 島山思想의 次元이며, 따라서 그 國漢文體는 機能的 몫에 주력되어 있다. 이 機能的 역할과 志士的(意志的) 역할이 六堂自身에 의해 가장 확실히 結合된 時期 그것이 韓國民族의 총동원인 3.1 運動의 「己未獨立宣言書」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文體와 社會의 對應關係를 이보다 더 선명히 보여주는 例란 실로 흔하지 않은 것이다. 이 國漢文體가 지닌 對自的 存在성과 即自的 存在性의 두 側面이 國漢文體속에서 共存하지 못하고 1910년 以前엔 對自性만이 그 以後엔 即自性만이 不具性으로 놓여있다가 3.1운동의 한순간에 結合되었으나, 그 運動의 失敗는 다시 不具性으로 되어 植民地 全期間속으로 傾斜지는 것이라 파악된다.

(2) 翻案・翻譯樣式

(18) 千寬宇 「張志淵과 그의 思想」(「白山學報」3號)참조.

(19) 「皇城新聞」謄寫 1905. 11. 20.

(20) 六堂의 文體實驗의 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時文讀本」(1916·新文館)일 것이다.

둘째로, 翻案 및 翻譯物에 대한 樣式의 갈등을 問題삼을 수 있다. 翻案을 통한 思想移入의 과정은 文體와 關係하여 먼저 中國側事情, 具體的으로는 梁啓超에서 찾을 수 있다.⁽²¹⁾ 가령 論說에서 보이는 須便斯(스편스) 他利斯(타레스) 披刺阿斯(피타고라스) 倍根(베이콘) 非德(휘테)(이상 「大韓每日申報」 및 「萬國事物紀元歷史」등) 및 朴殷植의 「天演論」(「西友」創刊號)등의 文體나 紹介源泉은 「飯氷室文集」에 의거한다는 점을 엿보게 한다. 그렇다면 梁啓超의 文體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梁啓超는 在來의 저널리스트이며 웅변가이며 조직가이고 美文家였다. 그의 文章은 日本語文體를 채용한 강결하고도 알기 쉬운 「新文體」였다. 新文體란 當時 아직 漢文體였으나 일부러 日本의 文句나 文脈을 넣은 것이다.

今日所急欲提問於諸君者. 則諸君天職何在之一問題是也. 人之天職本平等也. 然被社會之推崇愈高者. 則其天職亦愈高.

이와 같이 目的語를 顛倒시키고, 助詞만을 바꾼다면 바로 日本文이 되는 文章이 곧 「新文體」인 것이다. 이 신선한 文體는 당시 中國의 진보적 靑年들의 동경의 대상이었고 新聞, 雜誌文章의 模範으로 되었다.⁽²²⁾

만일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開化期 韓國 知識人들의 西歐思想의 源泉이 初期엔 저 호한한 「飯氷室文集」에 의거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면⁽²³⁾ 國漢文體 및 思想移入의 翻案的 要因이 二重으로 日本文體에 연유한다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商務印書館의 日本人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日本的으로 번역된 수다한 譯書를 감안한다면, 韓國 開化期의 500여종에 달하는 教科用圖書의 位置가 어디에 座標하는가를 추찰할 수 있게 된다.

(21) 胡適은 일찌기 『五十年來中國之文學』에서 梁의 영향에 대해 「二十年來讀書人으로서 거의 그의 文章의 영향을 받지 않는자는 없다」고 한 바 있다(增田涉 「中國文學研究」 岩波書店, p. 66).

(22) 實藤遠 「中國近代文學史」 上卷 (淡路書房), p. 76.

(23) 「飲氷室自由書」(全恒基譯 1908)이 나온 것은 후기이기는 하나 知識人들을 原典에 의거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1910年 梁의 著書는 國內에서 發禁된 바 있다.

翻案物 문제를 고찰하려면 19세기末 東洋文化圈에 충격을 준 西歐的 因子로 인해 변혁의 운명을 함께 한 日本, 中國 및 韓國 즉 三國의 관계라는 테두리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 이 比較文化論에서 관건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소위 明治期 日本의 政治小説이다. 이 경우 政治小説이란 文學에서 말하는 장르概念이기보다 그 上位概念인 思想的 측면이며, 韓國에서 開化期小説이라 할 때가 장르概念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日本의 政治小説(政治文學樣式)을 떠나 韓國開化期小説의 初期모습을 고찰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瑞士建國誌」(1907)등 초기 翻案物에 「정치소설」이라는 명칭이 붙여있다는 점, 둘째 「經國美談」(1908. 玄公廉譯), 「雪中梅」(1908 具然學譯)등이 日本政治小説의 代表作들이라는 점, 셋째 李人植의 「血의 淚」(1906)에 약간의 政治的 見解가 디테일 面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 등이다.⁽²⁴⁾ 그렇다면 이 政治小説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

政治小説의 일반적 개념은 『政治的 文學의 意味로, 文學史的으로는 『明治初年の 自由民權運動을 背景으로 하여(1877~1887)성립된 小説』에 限定된 것』⁽²⁵⁾으로 되어 있거니와 이 간략한 定義에서도 엿보이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정착된 특정 명칭인 것이다. 가령 『政治思想이나 政治的 環境이 支配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小説 또는 그와 같이 畧으로써 根本的인 歪曲을 받는 일이 없이 分析의 面에서 어떤 利得을 내어주는 小説』⁽²⁶⁾이라는 一般概念라는 別個의 것에 속한다. 특징개념으로서의 明治政治小説은, 정확히는, 『初期엔 人民... 政治的 啓蒙, 政黨의 革命的 宣言 내지 鬪爭의 補助的武器로서 利用되고, 中期에는 個人的 政見發表

(24) 「血의 淚」첫부분의 反清, 親日的 見解, 구완서 部分의, 日本, 만주, 한국 의 聯邦道構想 따위, (「萬歲報」, 1906. 10. 4.)

(25) 近代文學懇談會編 「近代文學必携」, (學燈社) pp. 15-16.

(26) 金容權譯 「政治와 小説」(위성문고), p. 10.

때지 社會改良思想을 積極的으로 도모하는 하는 것, 後期엔 新興 日本의 國權伸張意識을 反映하는 한편 政府를 支持하는 사람들, 政府를 構成하는 諸勢力을 毒로하는 諷刺的인 武器로 作用되는 것』⁽²⁷⁾으로 규정된다. 고쳐말하면 일종의 國事小說(Staatsroman)인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矢野龍溪의 「齋武名士經國美談」(1883~1884) 廣末鐵腸의 「雪中梅」(1886) 柴田四郎의 「佳人之奇遇」(1885~1891) 등이며, 叔上된 두 작품은 韓國에서 번역된 바 있다. 문제의 所在를 선명히 하기 위해 韓國에서의 「經國美談」번역의도를 살펴둘 필요가 있다.

관관은 청설하시오. 아 한국문의 편리가 한문보담 긴요하여 민지를 발달하기가 쉬우되 이왕 여염에서 성남하는 소설이 부담허무하여 부녀와 목동의 담소하는 자리가 될 따름이요 지식과 경륜에는 일호의 유익이 없을 뿐더러 원대한 식견의 방해가 불두인 고르 백수촌옹이 야인을 감심하고 현현장부가 우맹을 면치 못하니 어찌 개탄치 아니키오. 이러므로 본인이 작곡서적을 편람하다가 제무국 회복라든 영웅준걸의 애국혈성을 감동하여 「경국미담」신소설을 번역하되 고투의 부허지설은 일체 불용하오니 구람하기는 첨군자는 그인의 사적을 보아 애국심을 분발하여 일후라도 목소 당할 지위를 생각하시오. ⁽²⁸⁾

이 引用 증, 「經國美談」이 知識과 經倫, 愛國心과 관계된 점, 「신소설」이라는 범주에 넣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즉 당시 성행하던 부녀자나 목동층에 읽힌 부담허무류의 신소설과는 다르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經國美談」은 어떤 것인가.

이 작품은 많은 政治小說중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²⁹⁾ 「Young Politicians of Thebes」라는 副題를 단 이 작품은 표면상 古代 희랍 역사의 一斷面에 있다. 여기서 표면상이라 한 것은, 테베 諸名士의 民政回復과 政治的 經營을 천년前의 史實과 明治 당년 現狀을 비교한 정치성에 작가의 의도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 플롯은 테베 民政발흥을 주제로

(27) 柳田泉「政治小說研究」上卷, (春秋社), p. 33.

(28) 玄公廉譯序.

(29) 柳田泉前掲書 p. 186.

前後편으로 나뉘지고, 前篇은 對內的 經營, 後篇은 對內的 經營으로 되어 있다.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1) 王室尊嚴과 人民幸福, (2) 內治改良으로서의 國權擴張, (3) 地方自治, (4) 選舉權活用등으로 集約된다. 물론,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작자 자신의, 그리고 그가 소속된 改進黨의 포부인 것이고, 이 사정은 「佳人之奇遇」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특정양식으로서의 政治小説은 다음 세가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國會開院(1880)을 피크로 하여 民權時代의 政黨정치에 관련, 그 시대적 배경을 들 수 있다. 言論기관에 중심에 놓인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小説의 기능이 놓이는 것이다. 둘째 작자가 단순한 文士가 아니라 政黨의 中心人物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반대당 및 民衆의 지지와 토론성과 관계된다. 셋째 空想이나 虛構的 태도보다 歷史的 記錄에 임하는 태도를 들 수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韓國쪽의 翻案的 小説移入의 바탕을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바탕이란 歷史的 社會的 構造의 韓國的 特殊性和 開化性(一般性)의 異同點에 관계되는 것이다. 1900年을 前後로 한 韓國知識人의 志向性은 外勢와의 투쟁, 國權回復의 志士的 性格으로 경사진 것으로 權力을 쥐어 자기의 經倫的 포부를 드러낼 수 없는 狀況的 制約이 뚜렷했던 점이 먼저 지적될 수 있다. 이 결정적 한계는 日本과 같은 政治小説이 韓國에서는 展開될 수 없는 限界를 뜻하는 것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1905年에 外交權喪失의 단계가 놓여있고, 그 이듬해 나온 「血의 淚」에서 이미 親日的 萌芽가 돋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中國側과 다른 點이기도 한 것이다.

中國開化期 政治小説도 韓國의 그것과 類似點과 差異性을 동시에 갖는데, 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光緒 31年(1905)까지의 梁啓超중심의 日本政治小説의 번역 소개는 梁啓超譯 「佳人之奇遇」(1898) 同 「經國美談」(1899), 憂豆子譯 「累卵東洋」(1901), 熊垓譯 「雪中梅」(1904) 등

을 들 수 있다. 특히 最大의 작품 「佳人之奇遇」를 梁啓超가 직접 번역했는데 이 작품 16卷部分(끝部分)이 韓國外交史話이다.⁽³⁰⁾ 그는 이 部分을 『朝鮮者, 原爲中國之屬土也云云』의 百餘字로서 독선적 改作을 해버렸다. 直接 한국에 관계된 이 작품이 정작 韓國에서 완역되지 못한 이유란 무엇일까. 요컨대, 아직도 당시의 한국정세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될 따름이다. 梁啓超는 日本에 亡命하여 日本을 통한 西歐文明을 集大成한 학자이며, 그가 제시한 小說論은 中國 및 韓國에 크게 영향을 떨친 것만은 틀림없다. 그는 「譯印政治小說序」(「佳人奇遇」譯序文)에서 『政治小說의 體는 泰西人에서 비롯되며…… 小說爲國民之魂』⁽³¹⁾으로 보았고, 유명한 「新小說」誌 發刊辭의 『欲新一國之民, 不可不新一國之小說……是小說有不可思議之力是以支配人的心理……認爲小說文學之上乘.』⁽³²⁾라는 見解를 투철히 한 것이다. 小說의 「不可思議之力」이란 熏(熏染) 浸(浸透) 刺(刺戟) 提(同化)를 뜻하며, 이러한 태도는 1917年 「文學革命論」에서 陳獨秀가 『지금 政치를 革新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운동의 정신계의 바탕인 文學을 革新할 것』⁽³³⁾에 直結되는 것이다. 이러한 中國式 發想은 大文學國이며, 大文字文化國의 엄청난 역사적 증압에서의 변혁과정이기 때문에 강력한 표현이 나온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그들에게 言文一致가 단순한 文體變改가 아니라 思想自體의 改革을 뜻하는 그 強度가 餘他の 나라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韓國에서의 散文樣式으로서의 小說認識은 日本이나 中國과는 현저히 차질한다. 이미 한국 開化狀況이 政治疎外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政治小說의 成立을 처음부터 不可能케 한 것이다. 政治小說에서 정작 그 核心이 되는 政治的 포부나 經綸이 제거될 때 남은 部分이란 무엇인가. 이

(30) 16卷 끝에 韓末정세가 집중적으로 논의됨. 作者는 三浦公事고문日, 本代議士이며, 閔妃시살에 가담. 金玉均의 踐文이 붙여 있다.

(31) 『中國近代出版史料初編』(上海), p. 104.

(32) 同上, p. 184, p. 191.

(33) 陳獨秀 「文學革命論」(「新青年」2卷 6號), pp. 2-3.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국 開化期小說 대부분의 內容이 될 것이다. 李海朝의 「花의 血」(1911)序言과 跋文을 그 한 답변으로 볼 수가 있다.⁽³⁴⁾ 한마디로 그것은 흥미분위, 선악판단의 소극적 차원이며, 「선사」 「부인」 등의 계층에 머물게 하여, 小說이 諺古談雜書에로 還元케 하는 것이다. 小說로써 어떤 民族的 改革의 經綸을 삼기 위해서 한국문학은 李光洙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3) 開化期創作小說

흔히 新小說이라 불리는 작품들을 일단 창작이라 전제하고, 그 작품들을 構造的 側面에서 살핀다면 「新」의 意味가 거의 없다는 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血의 淚」을 例로 든다면, 淸日戰爭이라는 극제적 무대(소설공간의 확대) 주인공 옥련, 구완서, 옥련의 父 등이 日本, 美國으로 유학, 신학문공부등이 다루어졌고, 후편 「牡丹峯」의 무대설정이 「佳人文奇遇」와 방불하다는 것⁽³⁵⁾ 등등의 배경이 「새로움」에도 불구하고 小說의 構造는 父, 母, 女의 이별과 상봉에 놓여있어, 가족관계의 완강성을 보여줄 따름인 것이다. 「雉岳山」(1908) 「鬼의 聲」(1906)에 이르르면 善惡對立이 일종의 자학증세로 露呈된다. 약간의 新舊對立을 보이다가 오히려 善惡對立으로 복위하는 이 경사는 六錢小說과 동일보조에 전락하는 것이다. 春川사는 강동지가 허영에 눈이 어두워 딸 길순이를 양반소실로 보내어, 본부인이 길순이를 죽이게 되는 「鬼의 聲」의 惡의 문제는 지극히 도식적이다. 자객이 길순이를 죽이고, 그녀가 입고 있던 어린애까지 칼로 갈라죽이는 묘사는⁽³⁶⁾ 고대소설이 단 몇마디의 메타포로 처리해나간 점에 비하면 훨씬 후퇴한 手法인 것이다. 「自由鍾」(1910)의 작가의 「九疑山」(1912) 「春外春」(同)에 이르던 家父長制的 가족관계, 蓄

(34) 乙酉文化社版, p. 349, p. 412.

(35) 「佳人之奇遇」의 첫장면은 필라델피아 自由의 鍾塔묘사인바, 「牡丹峰」은 샌프란시스코 야소교당 쇠북소리로 되어 있다.

(36) 乙酉文化社版, pp. 218-219.

妻관계의 極에 달하게 된다. 「장화홍련전」과 같은 독특한 鮮美한 繼母 小說이 이만큼 低俗 野卑에 이르렀다는 것은 同一한 繼母型의 類型에 다 기초를 두었다 하더라도 天墨의 差가 있는 일이며 이 시대에 이르러 舊 小說의 붕괴가 얼마나 처참의 境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³⁷⁾이라 말해질 때 開化後期小說의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장르의 意味를 다시 살핀다면 林和의 이러한 모진 批判도 실제로 견딜 힘을 이들 小說이 지니고 있었다는 뜻으로 될 수 있다. 실상 따지고 보면 開化期小說이 하나의 文學장르로 定立되고 있었다는 사실에의 확인이며, 이 強點은 構造的 性格을 띤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확실하고 따라서 頑固性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이러한 판단이 만일 옳다면 林和의 根本的 認識不足을 小說을 장르 概念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開化期 空間에 총인 呪術的 儀式속에 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의 文學的 根據는 樣式次元과 장르次元의 혼합상태에 있는 것이다. 실상 開化歌辭에 압도적으로 新知識 혹은 현실비판이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演說이라는 散文樣式속에 현실 비평성이 중여되었다는 점은 이로써 說明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開化期空間의 讀者階層과 對應關係에서 실마리를 찾아 그 位置, 소위 장르와 樣式의 座標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4) 演說의 散文化

한국 開化期 思想改革에서 커다란 세력권을 형성한 것은 「大韓自強會」(1906)중심의 演說會의 討論性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당시 言論界의 여러 記事와, 行해진 다음과 같은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女子教育의 必要(尹孝定 1906. 5. 19)

官尊民卑의 弊害(復鄭雲 6. 9)

早婚의 利害(尹致昊 6. 21)

(37) 林和 「概說朝鮮新文學史」(「人文評論」3卷 3號), pp. 39-40.

權利的 競爭(同 11. 17)

國文科 漢文의 効力(鄭雲復 1907. 12. 16)⁽³⁸⁾

이보다 먼저 「독립협회」의 토론회가 활발했던 것도 아울러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³⁹⁾

이 演說을 통한 討論性이야 말로 저 日本의 政治小説에 해당되는 몫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 獨立協會人士들이 在野政治人그룹이라는 점, (2) 現役政治人들이 직접참가하여 討論에 임했다는 것, (3) 그 討論의 內容이 政治的 制度面이었고, 따라서 직접 政治行動에 反映作用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등등으로 하여 그 特徵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討論性의 機能이 親日內閣과 楛負商에 의한 「獨立協會」의 解散(1898)과 함께 散文化된다. 이 質的 轉換이 安國善⁽⁴⁰⁾에 의해 이룩되었다는 것은 政治科出身이며 「政治學概說」교재를 쓴 그의 性分과 직결되는 것이다. 「演說法方」(1908), 「禽獸會議錄」(1908), 「公進會」(1915)등의 그의 著者가 소위 演說樣式의 散文化의 典型인 것이다.

「演說法方」은 泰東, 泰西의 演說方法, 태도, 학식 등을 다룬 기본 개론서이며 國漢文體로 되어 있고, 後半部엔 演說의 實際篇이며, 작가 자신의 演說內容이 피력되어 있다. 그의 대표작은 「禽獸會議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內容이 寓話로 되어있지만 실상은 演說에 직결된 討論性의 機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前記 「演說法方」의 측면 혹은 通俗化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演說의 討論性이 散文化 즉 文字化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演說의 禁止라는 政治的 強壓에 의한 討論性의 內在化라 할 것이다. 여기서도 선명한 樣式과 社會의 對應關係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 결과는 小説的 轉用으로 나타나게 된다.

(38) 「日帝下の 文化運動史」(民衆書館), p. 17.

(39) 「독립신문」 103號, 110號, 150號 등의 「잡보」판에 그 내용이 보도되어 있다.

(40) 1899년 東京專門學校(早大前身), 邦語政治科出身. 早大同窓會 淸부속엔 安必善(朝鮮士族)으로 되어 있음.

이 討論性的 內在化에 의한 小說的 特質의 획득이 近代的 小說의 모습, 가령 「나」라는 一人稱觀察者의 觀點導入, 知的 흥미의 次元 획득 短篇小說의 構造, 이솝式 寓話的 方法이 批判的 僞裝 및 諷刺의 手法 등을 可能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세력을 빌어 의뢰하여 몸을 보전하고 벼슬을 얻어하려 타국사람을 부동하여 제 나라를 망하고 제 동포를 압박하니 그것이 우리 여우보다 나은 일이요……또 나라로 말할지라도 대포와 총의 힘을 빌어서 남의 나라를 위협하여 속국도 만들고 보호국도 만드니 불한당이 칼이나 육철포를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탈취하고 부녀를 겁탈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소? (41)

이러한 樣式은 描寫를 철저히 배격한 演說體 그대로인 것이다. 이 文體의 感應力은 論說의 俗化에 있고, 諷刺性에서 그 感應力이 획득되는 것이다. 描寫를 첨가한다는 것이 당대 風俗의 反映이라면, 이 描寫除去方法으로서의 諷刺性은 思惟의 어른스러움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演說의 文字化는 寓話的이든 直說的이든 간에 「血의 淚」같은 開化期 小說樣式과는 전연 別個의 散文樣式에 속하는 것이 된다.

4. 律文樣式

朝鮮朝 후기의 律文樣式의 偏向을 體系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여러 難點이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그것은 民族의 生命的 리듬의 출렁거림의 回歸單位 測定과 關係되기 때문이다. 그 律文樣式이 民衆의 散文的 側面과 뚜렷하고 획기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英·正祖에 이미 드러난 長時調樣式으로 파악된다. 이 散文的 律文樣式의 파괴과정에서 純美한 律文의 結晶體가 고도의 기술과 세련성을 띤 것이 판소리樣式으로 볼 수가 있다. 그 基底에 놓여있는 것이 音樂, 소위 生命리듬意識임은 물론것도 없는 일이다. 開化期 律文樣式이 이와 이어지면서, 또한 近代的 散文性:

(41) 乙酉文庫版, pp. 18-19.

에 어떻게 反應하는가를 이 항목에서 美學的 次元으로 究明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韓民族的 偏向인가 아니면 律文의 美學的 문제인가의 方向性決定에 關係된다.

開化期 律文樣式이란 開化期에 나타난 (1) 漢文으로 된 詞藻, (2) 宗敎的 歌辭 가령 「용담가사」 讚頌歌 類, (3) 義兵들의 歌辭, (4) 愛國歌辭, (5) 開化歌辭, (6) 校歌類, (7) 社會告發歌辭 등을 총칭한 것이다. (7), (6), (5), (4)類만 보면 「독립신문」에 23首, 「皇城新聞」 15首, 「大韓每日申報」 34首, 「帝國新聞」 7首등⁽⁴²⁾으로 고찰할 수 있다. 이것을 初期에 나타난 歌辭라 한다면, 1908年 以後 六堂에 의해 씌어진 歌辭類를 두번째 단계로 區分하여 檢討할 必要가 있다. 六堂의 律文樣式속엔 (1) 新體詩, (2) 唱歌가 內包되며, 그 唱歌도 7·5調에 轉化되어 있으며, (3) 唱歌樣式을 開化普遍的 基本手段으로 삼은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初期唱歌樣式

우선 다음과 같은 例를 몇가지 들 수 있다.

- (A) 대조선국 건양원년/자주독립 기쁘하세
천지간 사람되야 진흥보국 제일이니
 님군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인민들을 사랑하고 나라기를 높이달세⁽⁴³⁾
- (B) 여회우리 學徒들이 開校歌를 불리보세
 皇上陛下 聖德으로 우리學校 創設하니
 大韓光武十年이오 丙午三月 望日이라⁽⁴⁴⁾
- (C) 內部大臣宋秉畷은 蹴走하던 小卒이라
 聞見敎訓없었으니 事君之道모를리라

(42) 丙元惠 「開化期の 唱歌考」 (1964, 未刊).

(43) 「독립신문」 3號 (1896. 4. 11).

(44) 「皇城新聞」, 1906. 4. 24.

犯分蔑紀하는 것을 不足掛齒하려니와⁽⁴⁵⁾

(D) 長安萬戶 各坊曲에 蓬髮突鬢 兒童들이
黑炭黃粟버러놓고 鑿地爲爐 불피었네
洋鐵집게 손에 들고 이리저리 볶아내며
方席上에 踞坐하야 군밤타령 和答하니
自由生涯너 뿐이라⁽⁴⁶⁾

이상 네편의 唱歌에서 공통된 점을 찾는다면 (1) 44調의 리듬을 밝고 있다는 점, (2) 작자미상이라는 점, (3) 漢文成語로 이룩되어 國文이 吐를 단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初期律文樣式에서의 문제점은 (C)와 (D)에서 드러나는 「社會燈」란의 告發精神 및 諷刺性이 指摘될 것이다. 이제서 批判機能이 唱歌라는 리듬의식을 동반해야 했던 것일까. 이 질문의 해답은 律文樣式 자체가 지닌 美學속에 놓여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 대해서 六堂이 中期의 「新體詩」를 완전히 포기하고 후기에 갈수록 唱歌에 기울게 된 이유의 해명과도 관계되는 것이다.

(2) 六堂의 律文樣式에서 偏向

(A) 中人階級과 島山思想

開化期의 계몽사상은 中人階級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계층적 문제는 현저히 社會學的 究明이 要請된다. 中人階級은 朝鮮社會에서 일종의 기능직을 담당한 계층인데 그 기능적 계층은 그 어느 계층보다도 편견없이 清歐文明에 일찍부터 接할 수 있어 近代化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그 기능적 계층은 그들이 속한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 아니었고, 그들의 文明理解가 다소 皮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限界點이 드러난다. 그러나 甲申政變의 실패와 국권의 상실은 中人階級 출신의 지식인들을 文化前面에 나서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崔南善이다. 朝鮮社會의 構造的 모순의 해결이라는 命題를 中人階級 출신의 지식

(45) 靑丘大學刊「大韓每日申報拔萃錄」, p. 353.

(46) 「大韓每日申報」, 1908. 10. 11.

인들은 서구文明의 수입에서 찾았고 그래서 그들의 사상내용 역시 文化的 계몽주의에 한정된다.

吳慶錫의 뜻을 이어서 내접의 개혁을 꾀한 사람이 또 증인계급에서 나왔으니 그는 吳慶錫의 친구인 劉大致다. 그는 보통 白衣政丞이라고 일컬어지는 초야에 파문된 선비로서 吳慶錫이 북경에서 가져온 「海國圖志」「瀛環志略」이니 하는 새로운 세계접세를 소개한 책을 읽어서……그 문하에 모인 사람이 그 당시의 청년개화당의 쟁쟁한 일군이던 金玉均, 洪英植, 朴泳孝, 徐光範 등이어서 1884년의 申申政變은 劉大致를 숨은 지도자로 하여 꾀진 것이다.……吳慶錫이 군사와의 교에서 펴보려던 경륜을——그리고 劉大致가 내집에서 크게 펴보려던 포부를 六堂은 文化에서 한번 펴보려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른다. 六堂은 자신이 中人階級の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항상 吳慶錫과 劉大致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여 왔다. (47)

기능적 지식으로 무장된 中人階級이 國權을 잃은 상태에서 그 知的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역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지도 모른다. 中人階級の 富의 축적이 가능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理論적으로 표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朝鮮末期社會가 市民社會의 가능성을 떨 수 있었을 것이나, 國權이 없는 노예상태, 「奴隸文化」속에서의 기능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노예적인 상태의 승인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崔南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두어야 할 점은 崔南善과 島山思想과의 관계이다.

안창호가 육당을 사회에 열심히 추천한 것을 알 수 있거니와 육당도 안창호에 대한 사모와 존경이 대단하여 「少年」제 3년 2권의 책머리에다가, 『삼가 이 詩集을 나의 가장 敬仰하는 島山선생 앞에 올려 海外에 있어 여러 가지로 思慕하고 念慮하던 情을 表하옵나이다.』하고 육당은 그의 유명한 <太白山詩集>을 안창호한테 올리고 있다.

육당이 안창호의 지도아래에 청년학우회의 설립위원이 되어 활동하였다는 구

(47) 趙容萬 「六堂 崔南善(三中堂)」, pp. 46-47.

체적 사실은 「少年」誌에 나타난 「청년학부회」의 사업보고에서 볼 수 있다. 1910년 4월 15일에 발행한 「少年」제 3년 4권에 「靑年學友會報」라는 목차를 넣고 거기다가 육당의 「논설靑年學友會의 主旨」를 실고 그 다음에 「會報」를 실었다. 이 광수가 「少年」을 가리켜서 「靑年學友會」의 기관지라고 하였는 데만은 이 기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8)

이 인용에서 「少年」誌가, 安昌浩가 창설한 「靑年學友會」(1909)의 기관지에 準한다는 지적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六堂의 초기활동이 島山의 상당한 영향밑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島山の 獨立方案의 核心은 精神改造를 뜻하는 民族教育에 있다.

독립운동기간에 우리는 교육을 힘쓰야 마땅할까요? 나는 단언하오. 독립운동 기간일수록 더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죽고 살고 노예되고 독립됨이 판정되는 것은 知力과 金力이오. 우리 靑年이 하루동안 학업을 폐하면 그만큼 국가에 손해가 되는 것이오.……또 국민에게 좋은 知識과 思想을 주고 애국의 정신을 격발하기 위해 좋은 서적을 많이 간행하여 이 시기에 적합한 특수한 교육도 하여야 하고 학교도 세우고 교과서도 편찬하여 해외에 있는 이들에게도 가급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오. (49)

島山の 이 「務實力行思想」은 民族性的의 改造라는 원칙론에 입각한 일종의 準備論으로, 朴殷植, 申采浩의 투쟁론과는 현저히 다르다. 六堂이 李光洙와 마찬가지로 島山の 準備論에 찬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현실타협주의와 계몽사상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B) 律文樣式의 偏向性

六堂은 세가지의 律文樣式을 시도하였는 바, 新體詩, 唱歌, 時調가 그것들이다. 「海에게서 少年에게」는 新體詩를, 「京釜鐵道歌」 「世界一週歌」등은 唱歌를, 그리고 「百八煩惱」는 時調를 각각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그 하나하나를 검토하기로 한다.

新體詩에서는 創作方法論이 우선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48) 同上, p. 98.

(49) 주요한 「安島山全書」(三上堂), p. 100.

「海에게서 少年에게」를 두고 李光洙는 朝鮮에서 새로운 詩 즉 西洋詩의 본을 받은 詩로 인쇄가 되어 세상에 발표된 최초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⁵⁰⁾, 이 때의 西洋詩란 구체적으로는 日本의 新體詩를 뜻하는 개념이다. 日本의 新體詩는 「時勢의 進歩에 應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作法은 다음 여섯 항목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格法이 自由로울 것, 둘째 規模가 廣大할 것, 셋째 言語가 풍부할 것, 넷째 語格이 現代語일 것, 다섯째 字句가 勁健할 것, 여섯째 旨意가 明晰할 것, 일곱째 新奇하고 清新할 것⁽⁵¹⁾ 등인데 이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海에게서 少年에게」의 構造가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의 文學的 裝置가 社會意識과의 對應關係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한갓 奇에 흘러, 新知識輸入의 포말화에 전락하기 쉬운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이 文學的 裝置를 功利的으로 利用할 경우엔 新知識輸入의 次元에 머물 수 있는 이른바 論說의 俗化 내지는 律文化를 어느 程度 가능케 할 것이다. 이러한 新體詩의 作法이 開化의 手段으로 강요되기에는 그 俗化의 程度가 너무 高차적이거나 高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쳐말해서 시기상조인 것이다. 여섯 항목이 넘는 이 文學的 裝置를 俗化한다는 것은 당시의 開化感覺으로서로는 도저히 갈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실당 六堂이 新體詩로서 내세운 것은 「海에게서 少年에게」라는 翻案套⁽⁵²⁾와 舊作 三篇 및 기타 두어篇을 제외하면 新體詩의 그 형식마저 폐기되었던 것이다.

이 新體詩를 포기한 이유와 詩의 關係에 있는 것이 노래體 즉 唱歌에의 偏向으로 파악된다. 六堂에 있어 이 唱歌에의 偏向이 얼마나 집요했느냐를 증명하기란 실로 용이한 일로서 그가 散文開拓까지를 포기한 점에서 단적으로 이 점을 드러낼 수 있다. 가령 「少年」誌 創刊號에서

(50) 李光洙 「六堂 崔南善論」(「朝鮮文壇」6號) p. 82.

(51) 井上哲次郎 「新體詩論」(「帝國文學」3卷 1號), pp. 9-15.

(52) 拙稿 「少年誌攷」(「饗宴」1號) 참조.

「快少年世界周遊時期」라는 言主文從體의 새로운 散文을 시도하였으나 「青春」誌 創刊號에 와서는 같은 內容을 「世界一週歌」라 하여 唱歌(노래體)로 쓰고 있는 것이다.

漢陽아 잘잊거라 갖다오티라
 알길이 길편하다 水陸十萬里
 四千年뎃도읍 平壤지나니
 鎭壯할사 鴨綠江 큰쇠다티여

.....

雄大한 피레네의 山脈을 넘어
 薔薇레몬 橄欖의 香에 싸여서
 衛蜀熊出港으로 世界에 名난
 코르도 港繁華를 구경하고서

.....

씨안 색록색시의 奇蹟行하던
 으르레안 저城을 北으로 가면
 오래두고 그리던 꽃서올이라
 파티야 얼굴로는 첩이다마는
 世界文明中心에 先鋒兼하야
 이세상 樂園이란 뜻다운일흠
 오래도다 들은지 우뢰피붓듯⁽⁵³⁾

의 六堂이 散文體를 포기하고 똑같은 내용을 7·5 調唱歌로 쓰게 되었을까. 고쳐말해서 왜 新文明에 관계된 內容일 경우 노래體쪽을 택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왜 開化期小說이 후기에 이룰수록 開化思想을 고취하기는커녕 古代小說보다 더 후퇴한 蓄妾모사와 善惡構成에 시종하고 말았는가를 밝히는 것과 對應한다.

이처럼 六堂이 노래體로 偏向케 된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開化知識을 보급시키기 위한 文學行爲중에서 노래體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 것은 노래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反復形式때문

(53) 「青春」創刊號, pp. 64-66.

일 것이다. 기억하는데 노래體보다 쉬운 것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은 美學上의 문제에 속한다. 이것은 노래體의 功利主義的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재래의 4·4 調에서 7·5 調의 日本리듬으로 옮겨간 것은 知識量의 擴大와 對應될 것이다. 4·4 調가 유교적 이념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였다면, 새 지식을 표현하는데는 그와는 다른 樣式이 要請됨이 必至일 것이다. 六堂이 1910년대라는 이 時點에서 自由詩, 散文詩, 즉 新體詩의 경지에까지 詩라는 文學的 裝置를 포기하지 못한 것은 그 자신 및 少數의 一部分이 새로운 知識을 習得하였음에 비해 그것을 받아들일 文化的 階層이 아직 形成되어 있지 못한 사실과 밀접히 對應되고 있음을 뜻한다. 1910년대 각 新聞에 많이 발표된 社會批判機能을 수행한 「社會燈」類의 署名없는 노래體樣式은 새 理念과 옛 것 사이의 갈등을 표현하는 마지막 樣式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諸事實을 六堂자신이 明證해 놓은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그의 「世界一週歌」를 分析해보면 노래體가 어떻게 새 理念의 표현이라는 開放性, 즉 散文機能을 代行할 수 있었는가를 확연히 알 수 있게 된다. 앞에서 引用된 「世界一週歌」에는 그 各聯마다 다음과 같은 解說文이 붙어 있음을 본다.

[피레네](Pyreness) 프랑스와 이쓰파니아의 國境을……[레몬](Lemon) 東南아시아地方原産의……[쥘안누샤르](Jeanne D'arc, 1412~1431) 프랑스女傑 프랑스가 썬리텐으로 더부러 戰敗하여 오를레안城만 남았을 적에 天命을 바닷다하여 二八少女로……⁽⁵⁴⁾

이러한 解說文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그림이 일일이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事實은 노래體의 散文化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술 속엔 다음 두가지 의미가 내포될 수 있다. 그 하나는 「西遊見聞」이래 수많은 歷史 地理教科用圖書에 담긴 開化知識의 軟文化機

(54) 同上, pp. 65-66.

能의 功利的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開化小說의 담당품으로서의 散文機能의 代置物이라는 점이다. 開化期小說이 그 자체로서의 構造와 機能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機能 중 新知識에 관한 機能만은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때⁽⁵⁵⁾ 이 측면을 노래體 唱歌가 담당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곧 唱歌의 散文化機能에 생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觀點이 어느 程度 타당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진술이 미로소 가능해진다. 즉 六堂의 노래體에의 偏向이 새 知識普及의 欲求를 뜻하는 것이지 文學的인 집착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그가 朝鮮朝사회의 마지막 文人이었다는 지적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러나, 이 唱歌에의 偏向性, 자세히는 7·5調리듬도 그후의 知識量의 확대를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총독부 憲兵治下에서는, 新知識自體의 無意味性, 적어도 그 限界性이 直面하게 된다. 新知識 그 자체가 日本開化知識과 거의 同質性으로 확인될 때, 開化期知識人의 意識構造의 反省的 次元은 자신이 「에디프스의 運命」에 처해졌다는 自覺을 낳았을 것이다. 「父의 喪失意識」에서 「父의 殺害意識」으로 변모될 때 新知識 자체의 限界를 痛感케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六堂이 新知識에 대한, 고쳐말해 唱歌자체에 대한 罪意識이 동반되어, 深化過程으로 경사져야 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는 것은 1911년에 발족한 「光文會」조직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罪意識의 過程이 捨象되었다는 이 사실은 韓國開化期知識人의 一般的 현상이며, 바로 이 점이 開化期文學이, 그 어느 장르,

(55) 開化期小說은 그 자체의 기능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소설들이 開化思想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 評價의 지장이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唱歌에 對한 그 逆도 眞일 것이다. 여기서 카이저의 所論을 보충한다면, 장르(Gattung)는 여러 뜻이 내포된다. 抒情樣式, 敘事樣式, 劇樣式으로 크게 나눌 수도 있고, 노래, 찬미가 敘事詩, 小說, 悲劇, 戲劇 등으로 細分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장르 선택에 있어서 그는 抒情詩, 敘事詩, 演劇에다 人間能力의 主觀性, 客觀性, 主·客觀을 혹은 世界觀의 三類型, 人間心理의 세 가지 體驗形態, 혹은 감정, 사상, 의지등의 세 가지 人間型등을 보인 헤겔이후의 美學者들의 見解를 紹介하고 있다. (W. Kayser: Das Sprachliche Kunstwerk, Franke, Sechste Auflage, S. 332ff.)

어느 형식을 각론하고, 非文學的 功利主義에 安住한 대부분의 이유가 된다. 마로 이 점이 이 時代가 啓蒙主義의 特性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실상 六堂이 時調에 기울고, 「百八煩惱」(1925)에까지 나아가지만, 여전히 啓蒙主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의 설명도 되는 것이다. 時調에서 「朝鮮心」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反省的 次元이 아니라 어슬픈 論理 혹은 博物學的 民族學의 所産이었던 곳에 근본적 실패의 文學的 理由가 놓여 있는 것이다. 결국 罪意識云云했지만 근대적 個性의식이 없는 곳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문제는 六堂이 開化期 新知識普及手段을 唱歌라는 노래體 裝置에 偏向되었다는 事實의 確認 다음 차례에는 그 美學的 根據가 무엇인가를 解明해 놓는 일이다. 우선 六堂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해놓고있다.

思想의 傾向으로써 世界의 人類를 살펴보면 대개 두 種類로 나눌 수 있으니 一은 內觀的 人種이라 할 것이요 又一은 外宣的 人種이라 할 것이다.……이 兩部類의 人種이 藝術의 위에 있어서는 前者는 繪畫的 像設的을 주로 함에 對하여 後者는 音樂的 叫唱的을 주로 함도 自然한 約束과 같았었다. 그런데 우리 朝鮮人은 속으로속으로 마음을 파들어가는 種人이 아니라 길으로 길으로 마음을 소리지르는 種人으로 저 두가지 中에서 猶太的인 後者에 부치는 種族이었든 듯하다. (56)

이 引用에서 물론 간단히 民族的 偏向을 認定하기는 어렵다. 六堂은 이 論文도처에서 韓國人의 人種的 特性이 哲學的 冥想的이 아니라 宗教的 樂天的이라는 것, 散文的이 아니라 詩的이라는 것, 그리고, 音樂에서도 『自己의 聲帶를 樂器로 하여 意思와 聲調를 同一한 器宮으로써 表白하기를 주로 하는 聲樂的 人種이……그런데 우리 朝鮮人은 장단으로 노래를 하는 種人이 아니라 실로 노래로 장단치는 種人으로……』(57)라고 主張하고 있는데, 이러한 主張이 무슨 學問的 프로즈를 취하고 있다는

(56) 崔南善 「時調胎盤으로의 朝鮮民性과 民俗」(「朝鮮文壇」 17號), pp. 2-3.

(57) 同上.

것이다. 이토록 소박한 民族學說은 아마도 獨逸에서의 분트類의 學問과 그것을 直輸하여 變形한 日本學者들의 理論에 關係되어 있을 듯하다. 勿論 오늘날 볼 때 이러한 學說로 民族性의 偏向을 추단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俗見에 틀림없지만 중요한 점은 六堂이 이러한 信念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六堂의 이 學問的 信念과 開化期律文樣式의 偏向性과는 거의 無關한 것이라 한 것이다. 왜냐하면 新知識의 律文化의 構造에 놓여있는 것이 리듬이라는 生物學的次元에 더 많이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3) 律文樣式의 美學的 根據

律文의 基底에 놓인 것이 리듬意識이란 사실은 세삼 說明할 필요가 없다. 형태상에서 볼 때 리듬은 리듬單位에 의해 論議 評價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散文이 단순한 연속성(das eizige continuum)으로 불리고 있는데 律文은 二重의 연속성으로 구성된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이중의 연속성은 반복에 의해 확립된다. 그렇다면 문제되는 이 反復性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놓여진다. 反復性의 本質에 관해서는 回復과 忘却이라는 論理와 文章과의 갈등에서 그 快感의 限界를 보인 다음 見解가 시사적이다.

리듬은 週期的으로 되돌아오는 단조로움이다. 韻律論은 言語의 運動이 單調의 도움으로 週期的으로 配列되는 方法이다. ……空間적으로 남아 있는 部分의 同一配列은 여기서는 있을 수 없다. 運動은 空間적으로 配列된 運動에서 時間적으로 配列된 運動이 된다. 空間的 多樣性은 時間的 運動에서 出發한 形態의 統一에 따른다. 이 運動이 명량함의 원천이다. 이 변화의 쾌감은 제한된 유효성을 갖는다. ……詩와 文章은 운동과 운동된 것의 갈등의 통일에 그 본질이 있다. 詩는 단조로운 영속성에 그 본질이 있고, 文章은 변화에 그것이 있다. (58)

그렇다면 開化期 리듬이 단지 文章상태이냐 詩의 狀態인가, 혹은 그

(58) F.G. Jünger: Rhythmus und Sprache im deutschen Gedicht (Stuttgart, 1952) S. 30.

接點에 놓여있는가의 검토를 강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리듬의 回想・忘却作用과 그 근거에 놓인 單一聲調의 構造가 開化唱歌의 4・4調와 7・5調에 各各 어떻게 變形作用되는가의 解明은 물론 간단히 規定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解明에 있어서의 問題性은 開化歌辭라는 것이 唱歌로 불리든 노래體라고 부르든 間에 어떤 특정 장르(vernacular genre)로 定立된 것이 아니라 律文樣式次元에 流動狀態로 머물러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우선 리듬에 의해 가장 강력한 예술수단(das stärkste alle Kunstmittel)의 가능성을 재빨리 보일수 있었기 때문이다. 開化期 小說이 뒤로 갈수록 古代小說로 후퇴하고 만 사실은, 실상은 開化期小說이 장르상의 定着性을 裏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하면 功利的 타산에 의한 開化歌辭는 장르상의 定着上을 갖지 못한, 한갓 律文樣式상태이며, 따라서 유동적인 개념이고, 內容의 普遍性을 획득할 수 없었다고 파악된다. 그렇다면, 律文樣式으로서의 리듬의 發生的 根據를 다시 확인함이 보다 先決問題로 되는 것이다.

이 리듬論에 대한 美學的 解明은 일찌기 헤겔의 美學이 밝혀놓은 바 있다. 최근 루카치의 美學도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 그 한 관점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리듬의 原初的 형태가 無리듬(Arhythmie)이 정신의 장애 혹은 病的 징후라는 의미에서 『生物的 實存의 한 契機』⁽⁵⁹⁾라고 일단 規定할 수가 있다. 不規則하게 步行할 경우 疲勞가 增大된다는 사실은 자연의 질서와 勞動發生說을 함께 포함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리듬이 어떻게 脫擬人化 즉 人爲的 과정을 겪느냐에 관해서는 다음 몇가지 원론적인 점을 分析해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우선 플라톤이 리듬을 神聖視해왔다는 점, 달리 말하면 '본능적, 야만적, 미개적'이라는 사실의 검토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쉴러의 引用을 요약한 루카치의 지적이 시사적이다.

(59) G. 루카치 「美學」 1卷 (木幡順三譯 勁草書房), p. 248.

첫째로 리듬이 지닌 結合的인, 內容的으로 異質的인 것을 同質化하는 機能. 둘째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副次的인 細部를 排除하는 리듬의 意義, 세째로 具體的 作品의 全體에 관한 統一的 美的 雰圍氣를 창조하는 能力이다. (60)

루카치의 견해에 의하면 리듬이 사상적으로 우선 呪術的 外衣를 내포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이 呪術的 外衣속에 리듬의 美的 機能의 萌芽가 容觀的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로부터 美學的 範疇로서의 리듬의 特殊性이 考察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첫째로 리듬의 形式的 性格을 든다. 이 形式的 性格의 파악 다음에 韻律學의 차례가 오지만 차라리 이것은 音樂理論에 準하는 기계적 法則性이며 그 基盤이 個別的 特殊 言語圈의 문제에 속하므로, 여기서는 이 단계에까지 나가지 않고 첫째 단계의 문제점만을 다시 분명히 해두기로 한다. 즉, 그것은 美學的 範疇로서의 리듬의 특징이 걸치는 영역에 관한 것이다.

리듬은 現實의 反映에는 틀림없지만 現實의 具體的 內容의 反映이 아니라, 차라리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內容을 객관적으로 分節하고 秩序를 주어 그것을 人間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케 하는 特定한 本質的 形式인 것이다. 이것의 普及과 一般化속에 呪術은 어떤 종류의 역할을 수행한다. 呪術은 反映된 리듬을 그 참된 根源에서 점점 강력히 멀어져, 運動이나 謠謠등의 新形式에 適用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 新形式間의 새로운 變容과 結合을 만들어 내지만 그렇다고 秩序化機能을 없애든가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그 반대인 것이다. 바로 그것은 呪術的 結合인 것이다. 즉 呪術속의 儀式的인 것을 점점 強調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事象에 即한 根據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感情에 却하고, 感情을 誘發여하, 喚起的으로, 리듬속에 人間에 의해 肯定되어, 人間의 自己意識을 誘起, 高揚하는 秩序의 原理를 強調할 따름인 것이다. 이때 강조됨은, 형식으로서 점점힘을 지닌 리듬의 現象이 內容的으로(呪術的 內容으로서) 特定の 目標를 設定하는 形式이라는 점이다. (61)

이상과 같은 리듬의 美學的 根據를 살펴 본 것은 처음 의도대로 開化

(60) 同上, p. 271.

(61) 同上, p. 272.

唱歌를 장르 以前의 律文樣式으로 본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만일 唱歌가 新知識에만 局限된 것의 普及 및 受容裝置였다는(文學的 裝置以前의) 우리의 見解가 타당하다면, 唱歌가 지닌 리듬은 韻律學의 解明分野가 아니라 根本的으로는, 呪術的 次元에 속하는 것이 되리라. 사람들이 아직도 開化歌辭一般을 韻律學的으로 究明하려 들지 않는 것은 韻律學的 觀點이 처음부터 成立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無意識的이든 意識的이든 알아 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開化期(단일 세계관의 分열과정)空間속에 놓여있는 呪術的 要因의 解明에 놓인다. 開化期를 휩쓸고 있었던 新知識에의 熱風이 리듬化의 傾斜에 儀式化되는 과정에 作用된 힘이야말로 바로 呪術的 질서였을 것이다. 그것이 單線的 聲調라는 리듬의 획일화에 의해 환기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創造的 主觀에 대해서는 물론 受容的 主觀에 대해서도 알맞는 것이다. 앞서서도 몇번 지적된 바와 같이 이 開化期 空間의 呪術的 要因이 儀式的 外觀을 띠 수 있었던 것은 國家喪失意識 즉 父意識의 喪失過程에서 說明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解明에는 社會心理學의 方法을 援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다음 차례에 소위 계층적인 파악문제가 놓일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唱歌에도 4·4 調, 7·5 調등의 구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에는 소위 藝術社會的方法으로서의 文體의 階層的 對應關係 究明인 것이다.

5. 장르의 問題點

장르라는 프랑스語는 屬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장르形式라 할 때 種의 概念으로 사용되며, 또한 이 種概念內部的 토막을 포시하는 개념으로 협의의 장르라는 말이 함께 쓰일 수 있다.⁽⁶²⁾ 이러한 장르를 문

(62) 치모프예프 「文學理論」(東郷正延譯 青木書店) 2卷, pp. 273-274. E. Staiger: Grundbegriffe der Poetik, Atlantit, S. 204ff.

재삼을 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르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의 區別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 같다.

첫째 문제는 장르의 根據 혹은 根抵에 놓인 것이 무엇인가에 있다. 그것은 人間描寫의 一定한 型, 性格描寫의 一定한 方法이라 일단 말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人間이 자기의 체험에 있어, 개개의 狀態에 있어 줄거리 없이 描寫하려면 抒情文學이 선택될 수 있고, 다른 한편 완결된 性格으로 줄거리있게 描寫하려면 叙事文學이 선택될 수 있다. 이 두개의 人間性格의 描出方法이 歷史적으로 一定不變함은 그것이 生活에 있어서의 두개의 基本的形式임을 드러내는 것이리라. 人間은, 여러가지 사건에 참여하면서 활동과 행위에 있어 자기를 발휘하느냐, 아니면 행위에는 나아가지 않고 그를 둘러싼 生活情勢를 體驗함에 의해 生活을 知覺하느냐라는 둘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이다. 그 선택의 모티베이션은 그가 처해있는 歷史的 情勢에 의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具體的 歷史的 內容에 있어서는 극히 多樣多樣한 諸作品속에서도 類似性을 감지할 수 있다. 그 속에 人間性格의 描出의 二元性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差異性을 감지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 다루어진 歷史的 內容이 反復을 不許하는 밑바닥이기 때문이며, 전혀 그 특정한 時期의 生活秩序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르란 一般的 現象이며 그와 同時에 歷史的 現象인 것이다. 兩者는 장르속에서 統一된다. 普遍的인 것은 단지 歷史的인 것으로서만 發現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文學發達의 全過程에 걸쳐 우리들은 거기에 類似한 장르를 보는 것이며, 또 금후에도 보게 되리라. 그렇지만 동시에 이러한 장르는 具體적으로, 결코 反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특정한 時期는 특정한 方法에 있어 人間行動 및 體驗의 性格 및 內容을 決定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行動이나 體驗이 實現되는 바의 情勢까지도 決定하기 때문이다. (63)

이러한 장르理論에서 한번 쭉이라면 開化期文學에 適用해도 되리라고

(63) 同上, p. 227.

생각된다. 그것은 여러가지 解釋可能性의 摸索이라는 명분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첫째 장르의 普遍性的의 根據가 人間性格의 두가지 寫出樣式이라는 점에 關係된다. 勿論 여기서 두가지 寫出方法이란 이 둘의 交叉樣式으로서의 演劇樣式(戲曲)을 內包하게 된다. 이 人間性格의 두가지 寫出樣式的 根據가 어느程度 타당한 것이라면, 開化期 文學樣式에 대한 檢討를 다음과 같이 해볼 수가 있게 된다.

첫째 開化期人間들이 그들 性格의 寫出方法으로 즐거리있는 完結된 性格쪽을 택할 경우 그것은 散文樣式이 된다. 둘째 이와 달리 行爲에는 나아가지 않고 自己를 둘러싼 生活情勢를 體驗하는 쪽을 택할 땐 律文樣式이 될 수 있다는 假說을 세워볼 수 있다. 세째, 以上 兩者가 混文된 것으로 演劇樣式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開化期小說이 장르개념으로 확정되어 있음은 古代小說에 直結된 構造의 견고성에서 연유함을 우리는 앞에서 지적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韓國社會가 새로운 開化思想 및 生活情勢를 完結된 性格으로, 始作과 즐거리가 있게 受容할 수 있었을가의 여부를 省察해야 될 것 같다. 빨리 말해 이 문제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朝末期社會構造의 밑바닥에 놓인 道德律을 그 한 증거로 내세울 수도 있다. 소위 家父長制의 엄격성이 朝鮮朝 社會構造의 견고성을 뜻한다면, 開港以後 갑자기 밀어닥친 開化의 熱風은 실상 한갓 生活情勢로서의 泡沫的 현상이었던 것이다. 合邦(1910)前과 그 後에 나타난 教科書에 있어서의 家族關係 道德觀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父子中心 父婦관계의 隸屬性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⁶⁴⁾ 小說의 경우 古代小說이라는 확고한 構造를 지닌 장르概念이 놓여있던 것이며 이 장르는 따라서 이 朝鮮朝 社會構造속의 人間性格의 完結把握力을 지닌 裝置였다. 이 속에 開化思想이 침투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될 수 없는 것이다. 벌위를 넓혀 생각한다면 갑자기 밀어닥친

(64) 崔在錫「韓國家族研究」(民衆書館), p. 284.

開化熱風이 首尾一貫性있게 파악될 性質이 못되었다고 한다면 韓國開化期散文의 弱勢는 必然的 現象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 진술은 開化期小說이 장르概念이라면 開化期 唱歌類가 장르概念以前의 樣式상태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둘째 開化期의 사상이 社會構造와는 완전히 유리된 異質的이며 호기심의 차원이었다는 것, 따라서 生活情勢로서의 순간적 浮動的 體驗的 性格의 측면이라는 그 寫出樣式으로는 律文이 선택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唱歌가 빈번히 씌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證據하는 것이며, 그 唱歌가 대부분 開化內容으로 되어 있음은 이 사실을 反證하는 것이 된다. 리듬의 呪術的 측면과 더불어 開化期演劇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다분히 장르의 定着性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소위「長恨夢」의 熱風이 이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우리의 考察에서 欠如된 部分은 앞에서 지적된 장르의 歷史的 性格인 것이다. 이 점은 社會意識의 階層的 發展과 寫出樣式의 對應關係의 究明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장르概念으로 把握되는 開化期小說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된다.

그 첫째로 短篇樣式을 들 수 있다. 다시 具體化시키면 李光洙의 短篇「無情」(「大韓興學報」11號~12號 1910)「어린 犧牲」(「少年」3卷 2號)「少年의 悲哀」(「青春」8號)를 첫째로 들 수 있다. 둘째는 玄相允의 「恨의 一生」(「青春」2號 1914)「薄命」(同 3號)「再逢春」(同 4號), 「曠野」(同 7號)등이며, 셋째는 걱정없을이의 「絶交의 晝翰」(「新文界」4卷 7號 1916) 넷째는 菊如 梁建植의 「슬픈矛盾」(「半島時論」2卷 2號 1918)등이 된다. 이러한 短篇 중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것은 「恨의 一生」과 「슬픈矛盾」이 된다. 이 점은 압도적인 李光洙의 長篇「無情」(1917)의 앞과 뒤에 놓인다는 점으로 하여, 한국小說史에서 밝혀져야 될 극히 중요한 문제점이 던져있는 것이며, 이 문제점 속엔 李光洙의 長篇「無情」과 廉想

渉의 長篇「墓地」(「萬歲前」1923)의 거리 측정이 우선적으로 내포된다. 그 다음으로는 短篇의 主流를 이루는 1920年代 프로文學과 民族主義文學과의 小說的 意味關聯이 놓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解決을 위해서는 邦合以後의 韓國社會構造와 韓國人의 意識의 不變性和 可變性の 分析과 對應關係로 文學現象을 바라보는 方法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 父의 喪失意識, 自由戀愛問題(父婦中心), 幻想的 失戀意識, 學生이라는 存在의 階層問題, 言論機關 主導者 및 讀者의 階層關係, 留學生의 性分 및 그들의 意識構造 등등의 解明이 이에 속하리라. 그다음 차례엔 소위 文體와의 對應관계 解明이 놓일 것이며 끝으로 장르의 問題가 남게 될 것이다. 가령 다음 몇가지 例文을 檢討해보기로 한다.

사랑하는 누이여, 내가 이 말씀 드림을 容恕하소서, 나는 외로운 사람으로소이다. 父母도 없고 同生도 없고 넓은 天下에 오직 한 몸이로소이다. 나는至今 托족 일찍 누구를 사랑하여 본적도 없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은적도 없나이다⁽⁶⁵⁾

이러한 李光洙의 短篇 大部分에 보이는 告白體와, 孤兒意識, 사랑에의 飢渴complex가 빛어낸 初期작품⁽⁶⁶⁾을 장르概念으로 확정하기엔 매우 곤란해진다는 점이 하나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玄相允의 「恨의 一生」이 短篇으로서의 構成力을 드러내었다.

밤은 벌써 下午十二時가 지나 격압하게 들니던 사람소리·말소리·自動車소리·탈구지소리가 잠짓 쏘아지고 들니 南山밧호로……平大門달닌 尹商浩라 門牌부친 기와집 안사탕 퇴마루압헤 허리를 구불이고 첫치우에 구덕구덕 어러붓 혼구든 쌍을 감안감안 쓰러집호면서 한거름 쓰한거름 퇴마루便을 向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다.⁽⁶⁷⁾

이 작품은 3인칭 視點과 主人公의 行動이 機能的으로 構成되었다는 점

(65) 「李光洙全集」(三中堂) 14卷, p. 39.

(66) 拙稿 「早稻田時節의 李光洙」(「讀書新聞」, 55號).

(67) 「青春」, 2號 p. 135.

에서 장르概念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無情」이라는 장편이라는 압도적인 장르를 가져버렸을 때 短篇으로서 장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슬픈 矛盾」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主人公 「나」인 국여⁽⁶⁸⁾의 허망한 세상미탄이 친구의 자살이라는 한 사건으로 소설적 구성을 모인 것으로, 小說이 知識人의 意識으로 처리된 최초의 例가 될 듯하다.

무론 나도 목적이 있어서 나오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바로가는대로 설렁설렁 성밀길로 이마장을 나아갔다. 어느듯 전차정류장에 나왔다. 마침 오는 광화문행의 전차에 뛰어들었다.……아무 얼굴을 보아도 모두 바○듯 한 모양이 그 보는 눈에도 덕연이 보이나 나와 같은 한가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구나 생각한즉 현실계에서 별안간 천장만장 깊은 곳으로 떨어진듯하여 야릇이 적막을 통절하게 느끼겠다.⁽⁶⁹⁾

한국 短篇이 여기까지 나아올 때, 바로 일년후의 「創造」誌의 金東仁과 부딪치게 된다. 「弱한 者의 슬픔」이나 「배따라기」系列을 本流로 볼 것이냐 「恨의 一生」 「슬픈 矛盾」系列을 本流로 볼 것이냐에 대한 태도결정은 1920년대 小說의 檢討에서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6. 結 語

이 論文에서 筆者는 어떠한 斷定을 내린다는가, 어떤 한 問題點을 解決 論證하려 試圖한 것은 아니다. 다만 몇개의 假說을 세워보고, 그것을 여러가지 方法으로 說明해 보았을 따름인 것이다.

近者 筆者는 文學史記述을 위해 몇개의 對象을 檢討해 본 바 있다.

(68) 梁建植은 菊如라는 雅號를 사용하였다. 그의 活動은 「每日申報」 「開闢」 등에서 보이며, 批評家로서도 活動한 바 있다. 그의 「春園의 小說을 歡迎하노라」(「每日申報」 1916. 12. 28)는 「無情」의 연재직전에 씌어진 것으로 그 位置를 살필 수 있다.

(69) 「半島時論」 2卷 2號.

그 중에서 매우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이 소위 開化期라는 對象으로 判斷되었다. 그것은 傳統社會와 近代社會의 충돌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國家喪失이라는 民族史的 면에서, 이 對象概念이 그 후에 展開되는 歷史의 方向性을 좌우하고 있어보인다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比重에도 불구하고, 實際로 이 方面의 研究가, 몇몇 研究家들의 업적이 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빈약하며, 많은 部分이 未開拓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보였다. 이 점에 대한 筆者의 생각은, 資料의 未整理도 큰 難關중의 하나였겠지만, 그와 못지 않게 方法의 實驗이 거의 없었다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였다.

方法이 물론 勇氣의 일종일 수는 없다. 그러나 유착상태에 빠진 難關의 克服은 多角的인 方法論으로 두들겨보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具體적으로 그것은 開化文學樣式의 全面的 檢討 즉, 原論的 美學的 檢討, 樣式과 장르의 檢討, 藝術社會學의 方法論등의 綜合化를 摸索함을 뜻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方法은 各專門家들이 이 問題에 대한 共同研究를 展開하는 일이라고 筆者는 생각한다. 이 진술은 開化文學樣式중에서 특히 (1) 開化期小說 소위 新小說의 장르개념으로서의 완고성, (2) 律文樣式의 非장르的 浮動성과 呪術的 리듬化, (3) 새로운 장르構成力으로서의 短篇 등의 解明可能性을 內包한다.